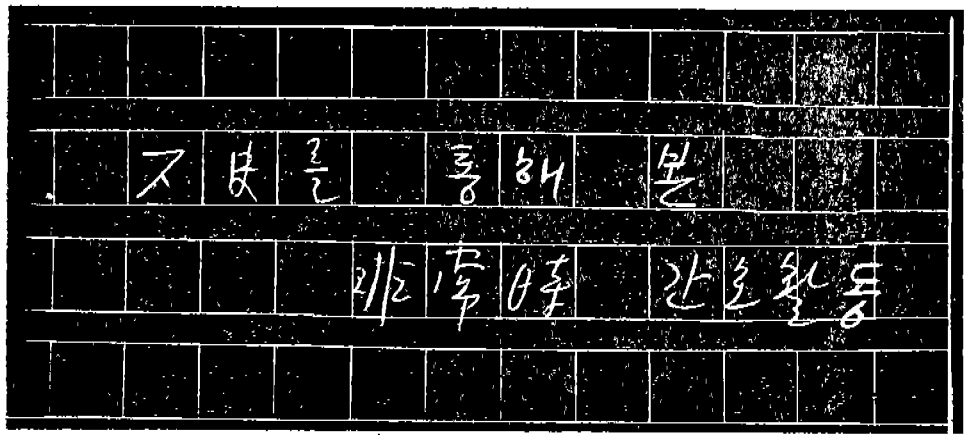


李　永　福
〈이대간호대학 교수〉

歷史家이요 思想家인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그의 著書 "歷史의 硏究"(A Study of History)에서 "인류로 하여금 無知와 不道德에서 분명하게 한 것은 理性과 科學이라고 믿고, 이제 進步의 꿈속에서 깨어난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歷史와 文明에 대한 危機의 해결책으로서 다시 과거의 역사속에서 또는 역사를 통해서 유익한 판단을 얻으려는 생각이 간절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의 對策과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보는 것은 늘 흥미있고도 유익한 일인줄 안다.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비상시간호란 대개 ①전쟁시 ②전염병의 대유행 ③천재지변(지진, 홍수등) ④흉년등이유로 발생되는 집단기아(饑餓) 등등 시에 지체없이 벌리는 간호활동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19세기 초엽까지도 간호활동의 대부분이 비상시간호에 속했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와서 발달된 豫防看護나 保健管理등은 물론 그 때 까지는 전무상태였고 환자간호도 臨床的으로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개는 전쟁, 유행병등 대규모적인 간호요구가 일어났을 때 그때그때 하나의 對應策으로 간호에 응했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初代기독교시대부터 오랜 中世紀를 거쳐서 近世인 18세기 말엽까지도 國家의 책임은 外賊의 침입을 막아서 國土를 지키고 國民을 보호하는 소위 警察國家로서의 行政을 했을 뿐이고 오늘과 같은 禮祉行政으로 國民들의 保健厚生에 대한 政府의 뒷받침이 없었다. 따라서 장기계획적이고 제도적인 간호활동이 없었고 다만 宗敎團體나 뜻있는 개인들의 도움과 간호가 필요한 때 自願的이고 일시적이고 救急的인 간호에 임한 사실들을 볼 수 있다. 한편 그 당시 간호가 이렇게 교육과 준비없는 간호이고 量的으로는 부족했으나 당시 看護人인들의 奉仕的인 정신과 간호의 質은 더 없이 崇高하고 헌신적임을 엿볼 수 있다.

看護發達史를 통하여 비상시간호의 성격을 띄었다고 보는 史家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들어보기로 한다.

★서력紀元 300—400년경에 로마에 귀부인(Roman matron) 간호원으로 유명한 세사람인 「폴라」(Paula), 「마르셀라」(Marcella) 그리고 「화비올라」(Fabiola)는 막대한 私財와 저택을 내어놓고 대규모적인 간호활동을 했음은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지, 行旅病者, 나환자들로서 비상간호의 성격도 띄운바 있다.

★기독교도들의 聖地탈환이라는 종교적인 動機로 시작된 十字軍운동(Crusades)은 1096-1271

년, 약 200년 가까운 동안 지루하고도 끈질기게 계속된 回敎徒들과의 전쟁이었다. 그동안에 부상자간호외에 전염병유행, 영양실조, 행여병, 나병들과의 싸움 또한 무서운 것이었다. 이러한 비상시를 당하여 많은 간호단체들이 조직되어서 싸우면서 간호하는 응급구호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중의 대표적인 것은 ①부상자간호를 주로한 聖요한 騎士간호단(Knights Hospitallers of St. John) ②婦人들과 애기간호를 주로한 聖메리 騎士간호단(Knights Hospitallers of St. Mary Magdalene) ③나환자등 전염병간호를 주로한 聖나자로 騎士간호단(Knights Hospitallers of St. Lazarus) 등이다. 이 단체들은 수백년동안 활동

〈「크리미아」전쟁때 「스쿠타리」야전병원에서 간호하는 「나이팅게일」의 모습(중앙)〉

했으며 聖요한 간호단은 계속 그 전통적인 구호활동을 벌여서 영국에 聖요한 救急看護團(St. John's Ambulatory Service)으로 지금도 그 後身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간호단체들은 十字軍運動후에 펼쳐진 東西무역, 文化交流등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외에도 전염병유행이 자잤든 오랜 中世紀를 통하여 몸바쳐 일한 많은 聖간호원들이 있다.

독일 공주였든 聖라데군데(St. Radegunde 519—587), 영국인 聖힐다(St. Hilda 614—680), 독일 修女長 聖힐데가데(St. Hildegarde 1098—1179), 헝가리 공주 聖엘리자벳(St. Elizabeth 1209—1231)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든 黑死病大流行時에는 이태리의 聖카트리나(St. Catherine of Siena 1347—1380)등 많은 종교단체 간호원들이 헌신하였다.

그후 聖빈센토·폴(St. Vincent de Paul)에 의해 조직된 자선수녀단(Sisters of Charity) 간호원들을 위시하여 많은 교회소속 간호원들이 1665년 특히 독일과 영국에서 여러萬명씩의 인구를 앗아간 黑死病大流行(Bubonic plague)시에 비상활동을 벌리었다.

★우리가 익히고 알고있는「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 1820—1910)이 1854년「크리미아」전쟁시 38명의 간호원을 인솔하고 가서 전시간호를 벌려서 6개월간에 부상병 사망율을 42%에서 2.2%로 감소시키고 軍隊衛生制度전체를 개혁한 사실은 너무도 유명하다.

그후 1864년의 듀낭(Henry Dunant 1828—1910)의 제창으로 赤十字운동이 시작되었고 人道主義에 입각한 中立的인 戰時活動이 범세계적으로 전개되었다. 적십자운동은 점차 확대되어서 전시뿐 아니라 平時에도 각종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非常時 醫療, 看護, 救護활동을 벌렸고 간호원들은 언제나 중심적인 인물로 활약하였다.

나이팅게일의 활동이나 적십자사의 창건등은 비상시간호가 계기가 되어서 효과를 걷우고 政府 또는 社會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항구적인 사업으로 발전된 좋은 例들이라 하겠다.

★英國은 나이팅게일 이후 간호교육의 발전으로 우수한 간호원을 많이 길러냈으며 1887년 빅토리아女王(Queen Victoria) 即位 50주년기념基金을 영국의 地域看護(district nursing)의 토대를 굳게하였다. 이러한 기초작업과 더불어 영국

육군간호장교단이 1881년에, 해군간호장교단이 1902년에 창설되어서 世界 제一, 二次大戰때 크게 활약했다.

제1차 대전때 영국간호원 카벨(Edith Cavell) 양이 벨지움, 부룻셀(Brussels)에서 연합국의 兵士들을 도와서 生命을 구해준 혐의로 1915년 10월 12일 독일軍에게 銃殺을 당해서 순직한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그를 기념하는 간호학교가 지금도 부룻셀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2차 대전때는 10,000여명의 간호원이 출전했으며 400여명이 戰死했다.

★한편 開拓精神이 강한 미국 간호원들은 戰時活動을 통하여 잘 단결되었으며 따라서 政府와 大衆들의 呼應도 컷고 戰後의 발전은 놀라운 것이었다.

1861—1865년 南北戰爭때는 처음부터 12개 종교단체에서 600여명의 수녀간호원들이 맹활약을 하였고 딕스(Dorothea Lynda Dix)와 알콧(Louisa May Alcott)등 지도아래 2,000여명의 비상시 간호원을 훈련하여서 대비하였다.

1898년 美西전쟁(American-Spanish War)때는 짧은 기간이지만 1,600명의 간호원들이 자진 출전하였는데 이때는 미국간호협회가 조직된지 겨우 2년 밖에 되지않은 때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부터이었으나 미국은 1917년 4월 비로소 참전하였다.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宣戰布告가 있은지 3주간후 미국 간호단체들은 필라델피아에서 회집하여 다음과 같은 決議文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國家가 우리를 요구할 때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市民을 위해서나 軍人을 위해서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들의 건강의 증진, 보전을 위한 일이라면 가정에서나 전쟁터에서나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6주간내에 수천명의 간호원들이 "전쟁이 그치지 않는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전지로 향하였다. 그후 미국 國防省에서는 매주 1,000명의 간호원을 8주간 계속 필요로 하였는데 動員令이 없이 8,000여명이 자진응모하였다. 참전한 23,000여명의 간호원중 유럽에서 296명이 戰死하였다. 프랑스 Bordeaux에는 이들을 기념하는 간호학교 교실과 기숙사가 세워졌다.

간호원들의 戰時看護를 통하여 미국정부와 대중들은 간호업무의 필요성을 크게 깨달았고 평시에 간호교육을 위하여 投資를 기울이게 되었다. 1920—1923년에 걸친 간호교육조사연구(Rockefeller fund에 의한 survey)는 그 한 例이며 이 報告의 결과로 간호교육과 그 質的向上에 대한 관심은 놀랍도록 변하였다.

2차대전 직전인 1940년 7월에 미국간호界는 무슨 豫感이라도 있은듯 國防을 위한 看護委員會(Nursing Council for National Defence)를 거국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會에서는 ①免許看護員의 點檢(Inventory) ②간호학교확장 ③간호要員의 補充을 목표로 일을 착수하였다. 전쟁중 국내외에서 활약한 각급 간호요원의 수는 171,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2년 간호교육을 위한 1억7천5백만불의 특별基金이 미국연방정부에산으로 議會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는 女性議員 볼턴(Frances Payne Botton)女史의 꾸준한 역할에 크게 힘입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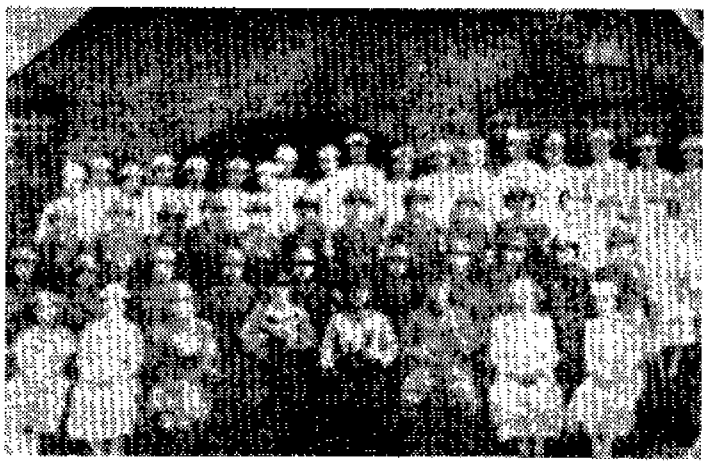
1944년 軍屬으로 있든 간호원들에게 正式軍階級을 수여하고 간호장교단장에게 大領계급을 주었다. 1947년 陸海軍간호원法이 발효되었고 1949년에 空軍간호장교단이 조직되었다. 한편 政府및 각급 財團등에서 研究費와 장학금이 쏟아져 나왔다. 전쟁중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생한 간호원들, 戰死한 간호원들의 보람이 헛되지 않았다는 歷史的 事實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기게 된다.

★韓國看護史를 통해본 非常時看護 1890년대 초기에 英國간호원 히트콧트(Emily Heathcote)와 웹스터(Elizabeth Webster) 두분이 아직도 한국여성들은 잠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그때 2개월동안 배를 타고 서울 마포에 도착 했다는 사실은 그 精神에 있어서 일종의 비상시간호의 본보기라고도 하겠다. 「웹스터」간호원은 5년

간 봉사후 병에 걸려서 12주간 고생하다가 이 땅에서 숨졌다.

1895년 滿洲에서 넘어온 호열자(cholera)의 大流行은 60,000여명의 사망자를 내었는데 그 당시는 자격간호원은 물론 없었고 선교사들, 기독교인들 병원에서 견습하든 사람들이 총동원하여 간호에 나섰다고 한다.

다시 1920년에 13,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콜레라 유행시는 훈련받은 간호원들이 참여했는데 특히 세브란스병원 간호원 吳華英, 張義淑 두분은 헌신적으로 끝까지 自願奉仕했다. 이들에게 약간의 금액으로 사례코저 했으나 끝까지 사양함으로 그 돈으로 환자를 위한 앰불렌스(ambulence)를 구입했다는 美談도 있다.



〈일정때 종군한 적십자 간호부들 흰옷은 근무복, 검은 옷은 외출복〉

1907년 舊韓國軍의 解散令에 인한 政治的인 큰 불상사때 42명의 중상자를 위하여 초기간호원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간호한 기록도 있다.

己未年 三·一 운동때와 1925년 을축년 大洪水 때 등 특히 「미손」계통간호원들의 활약이 컸다고 한다.

1905년에 조직된 大韓赤十字社에서는 비상시를 위하여 간호원양성에 착수했으며 上海 臨時政府에서 까지 32명의 간호원을 배출활동케 한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日政때의 활동은 정확한 기록을 입수하지 못했으나 전염병의 소규모 유행은 자주 있었음으로 간호원들의 활동이 늘 따랐음을 알게 된다. 2次대전중에는 女高學生들에게 까지 응급구호간호를 훈련시켜서 挺身隊 등 형식으로 파견코저 계획했으니 그때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었다. 物資의 부족과 人員의 부족 등으로 그당시 병원수출이나 병실에서의 간호활동도 그야 말로 응급적인 略式간호를 방불케 하였다.

1948년 政府樹立에 따라서 陸軍看護將校團이 正式발족되었고 警察病院, 赤十字病院등이 새로운 체제하에 비상시간호에 적극대비하게 되었다. 1948년 10월 麗順叛亂事件 때 이상의 세 조직을 통한 간호원들의 활동은 크게 도움이 되었다.

1950년 6·25동란 때는 세브란스의 金世才, 서울대학의 張起光등 指導級 간호원을 위시하여 300여명의 간호원이 자진월북, 납치, 행방불명등 되었다고 한다. 南下한 간호원, 간호학생들은 대부분 政府와 軍隊를 따라서 군속으로 입대 軍看護의 일손을 도왔고 피난민간호와 구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당시 피난민의 집단수용장소였던 제주島와 巨濟島등에서는 UN民事援助處(UNCACK)의 협조아래 많은 의사와 간호원들이 맹활약하였고 거제도 高峴소재 포로수용소에도 많은 한국간호원들이 美國간호장교들과 손잡고 일하였다.

동란중 참전한 16개 民主友邦國家에서 참전한 軍 혹은 民間간호원들은 自國軍의 간호는 물론 한국군, 민간인들의 간호를 펼치면서 在韓 UN 간호원회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서 1954—1959년 사이에 일하였다. 1949년도에 ICN에 正式가입 후 1953년도 Brazil총회에서 처음으로 表決權行事를 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그 總會席上에서 당시 會長 金溫順씨를 통하여 16개 우방간호단 체장에게 感謝狀을 전달한 바 있다.

6·25의 비극과 손해는 다 말할 수 없으나 한편 戰爭을 통한, 아니 逆境을 밟고 일어난 韓國看

護界는 많은 敎訓과 얻음도 있었다고 풀이된다. 즉 간호사업에 대한 社會的認識, 女性자신들의 간호교육에의 관심, 外援의 계속적 뒷받침으로 施設의 개선, 軍看護의 擴張, 國際交流의 活氣, 中央의료원의 發足 등을 들 수 있다.

1964년 당시 友邦自由越南에 派兵과 동시에 파견된 첫번 6명의 간호장교를 비롯 계속 군간호원과 민간간호원까지도 파월되어 歷史上 처음으로 한국간호원이 이웃나라에까지 가서 民主主義를 위해서 싸우다가 의료단의 철수와 더불어 귀국하였다. 1974년에 男子看護將校제도가 제정되어 최초로 5명이 임관되었다.

이상 國軍看護장교단, 赤十字간호원의 대비, 警察병원등 특수任命을 띤 組織은 물론 대한간호협회에서 진행중인 非常時간호에 대한 교육훈련과 대비등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절박해진 國內外의 時局과 狀況아래서 적절한 활동인 만큼 간호원각자는 비상한 각오아래 노력을 기울여야 될줄 안다. 그런데 現代的인 國家와 社會組織속에서 교육기관과 조직체의 제도적인 훈련과 계몽도 필요하지만 간호원각자의 召命感 즉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자리를 지켜야겠다"하는 自進해서 獻身하는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 이러한 뜻에서 돌이켜 볼 때 1957년부터 1975년까지 國際赤十字社로부터 「나이팅게일」紀章(Nightingale Medal)을 受賞한 19명의 우리들의 선배중 여러분이 軍, 警察, 전염병, 農村 看護등 非常時看護의 性格이 延長되는 어려운 일터에서 오랫동안 분투했다는 사실을 想起하면서 우리들은 오늘날 발달된 간호의 理論과 技術에 앞서 그분들의 精神을 본받아야겠다.

社會가 安定되고 國民들의 건강이 바람직한 나라들에서는 나이팅게일紀章 受賞者數가 줄어들고 아직도 비상한 때와 어려운 사건을 많이 겪어야 되는 소위 開發途上國에 후보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무심하게만 들어 넘길 수 는 없다.

結論的으로 1975년 7월 19일자 朝鮮日報 記事中에서 발췌한 감명깊은 한구절을 소개하련다.

6·25당시 벨기에 赤十字社파견으로 동란중인 한국에 와서 5년간 일하다가 철군과 함께 자기 나라에 갔다가 1958년 다시 한국에 와서 지금은 慶北榮州郡에서 나환자간호에 그 餘生을 바치고 있는 데레사 간호원 자신이 한 몇마디 말을 그대로 옮기였다.

"…당시 서울의 처참한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할 일은 미처 피난가지 못하고 폐허의 도시에서 굶주리고 있는 고아들을 돕는 일이었다. 자기 보호능력이 없어 남아있었든 어린이들의 겪은 고생은 말할 수 없었다. 몸은 상처투성이였고 말라리아, 결핵환자도 수두룩 했다.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구급약보다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다…."

6·25 당시,

"…지금 나는 한국 풍습으로 환갑노인이지만 지칠줄 모르고 고아들과 함께 지나든 그 당시나 지금의 생활이나 나는 한국인을 돕고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다…나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나환자들을 돌보고 이토록 평화스러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천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갈 계획이다"

〈공고〉

◉ 「조산원」에의 참여

모자보건사업의 전도와 간호원 여러분들에게 조산원자격 획득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1975년 3월 31일부로 보사부 훈령 195호를 제정하여 간호원으로서 정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현직에 근무하면서 조산 수습병원에서 조산습득을 받아 조산원 면허를 획득하고 정부모자보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니 간호원 여러분들께서 정부 모자보건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모자보건 요원이란 전국 보건소 및 읍, 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모자보건 요원을 말합니다.

※모자보건사업이란 :

정부의 모자보건 사업방침에 의하여 지역사회, 즉 농어촌 읍, 면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보사부모자보건과 박은덕〉